

시기심과 고통: 자기계발 서사에 나타난 감정 연구 - 막장드라마 〈아내의 유혹〉을 중심으로 -

박 속 자
(경기대학교)

◆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감정 양상을 막장드라마(Soap Opera)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시기심(envy)'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시기심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비교의 감정으로 질투심과 달리 이차관계(dual relationship) 안에서 나타나는데, 상대방의 행운(승리)을 불쾌, 부인, 방해하려는 역동을 가지고 있다. 시기심은 이처럼 부정적으로 감정으로 간주되는 게 일반적인데, 막장드라마 속에서 재현되는 시기심은 몹이 한정된 경쟁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열정으로 전치되어 나타나고 있다. '시기심'으로 촉발된 경쟁이 결국 자기계발의 성공 드라마로 재현되는 양상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재현된 시기심은 무한경쟁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열정으로 비화되거나 혹은 사악한 행동으로 개별화되면서 인물이 놓인 구조적 맥락이나 그 속에서 발원하는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아내의 유혹〉은 인물의 감정을 '시기심'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재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물이 처한 고통이나 맥락을 변용시켜 냄으로써 탈법적이고 비윤리적 현실논리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의 통속극과 궤를 달리해서 봐야 한다.

주제어 : 시기심, 막장드라마, 고통, 신자유주의, 자기계발, 성공, 서사, 서바이벌, 개별화, 감정, 〈아내의 유혹〉

1. 시기심의 감정구조

『오셀로』는 시기심에 의한 생의 소진을 보여주는 고전이다. 이 이야기는 오셀로의 ‘사랑’을 ‘스캔들’로 보려는 악당 이야고의 시기심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야고는 흑인 용사 오셀로가 베니스의 술한 남성들을 제치고 ‘천상의 여인 같은’ 데스테모나의 마음을 얻었다는 사실에 부러움과 질투를 느끼는데, 공교롭게도 오셀로 등장 이후 승진까지 좌절되면서 불쾌감이 확대된다. 그래서 이야고는 오셀로를 ‘무어인(아랍계 이슬람교도)’으로 하대하며, ‘오셀로의 기쁨을 뺏’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게 된다. 이야고는 데스테모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오셀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도 않는다. 오직 오셀로의 “기쁨에 독약을 뿌리는 것”¹⁾이 목적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셀로의 승리를 방해하는 것이자 그 상태를 부인함으로써 상대의 기쁨을 파괴하는 것이다.

시기심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비교의 감정이자 대상과의 거리가 비교적 멀지 않은 상태에서 드러나는 감정인데, 대상에 대한 선망과 불쾌의 양가적 감정을 해소할 때 발현되는 감정이다.²⁾ 대상에 대한 선망과 자신의 열등한 처지에서 비롯된 불쾌감이 폭력으로 전이되면서 ‘상대방의 기쁨을 빼앗는’ 감정이 시기심이다. 시기심과 질투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지만, 전자가 주체와 대상 간의 이차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이라면, 후자는 주체와 대상 사이에 매개자가 있는 삼자(삼항)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감정이다. 이를테면 질투는 주체와 매개자가 대상을 향해 동시에 경쟁하는 삼각관계에서 잘 드러나는 데 반해³⁾ 시기심은 『오셀로』에서 보다시피 자신과 실력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오

1) 셰익스피어, 『오셀로』, 최종철 역, 민음사, 2001. 27쪽

2) 김영미, 「소비사회와 시기하는 주체」, 『감정의 지도그리기』, 2015. 245-267쪽.

3) 지라르는 근대적 주체의 욕망 성립 과정에서 ‘매개된’ 욕망을 가정하면서 주체의 성장, 퇴행, 속물화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비록 이 욕망이 모방된 것이라는 점에서 ‘거짓’이기도 하지만, 이 욕망을 매개로 개인과 세계, 자아와 대상 간의 수직적 초월이 일어나기도 하고 매개자와 다를 바 없는 짝패 경쟁을 벌이기도 하다. 때로 자신의 욕망과 중개자의 욕망이 서로 비슷해 경쟁이 치열해질 때 희생을 만들어 모방 경쟁을 완화하는 사회적 상징적 기제가 발달하게 된다. 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1.

셀로의 행운을 부인하는 것이다. 질투에 비해 시기심이 좀더 원초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때로 시기심에 대한 논의를 근대화 이후에 불평등을 교정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욕구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현대사회의 불안정성, 경쟁적인 구조, 정보통신의 발달을 배경으로 이 감정이 더 강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⁴⁾ 적어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심은 사회부조리와 불평등을 감각하는 ‘분노’와는 그 차이가 분명하다. 시기심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상에 대한 완전한 파악이나 합리적 추론 속에서 배태된 감정이 아니라⁵⁾ 개인들의 무의식적 감정이자 본능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시기심’ 안에 ‘평등주의적 요구’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양상이 보편적이거나 의식적이지 않으며 대개 개별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부인하는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신자유주의의 맥락 속에서 시기심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의 열정으로 긍정되는 듯 보인다. 한정된 몫을 가지고 경쟁해야 하는 무한경쟁의 맥락- 마치 ‘의자쟁기’의 세계처럼- 속에서 시기심이 남의 것을 탐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경쟁 대열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처럼 전유되는 것이다. 이는 비교우위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신자유주의의 서바이벌의 프레임 속에서 한층 더 강화되어 재현된다. ‘감정’과 ‘자본주의’가 연동하며 주체의 감정이 자기계발의 대상처럼 조형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⁶⁾ 한병철은 신자유주의적 주체를 ‘성과주체’로 요약하면서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자기 착취’하는 ‘신자유주의적 자아 기술’이 발명되었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심리’, ‘감정’은 ‘통치’와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열정, 기쁨, 모험, 감정 모두 자아 관리의 기술처럼 상상된다는 것이다.⁷⁾ 이 속에서 시기심은 개인의

4) 김영미, 앞의책, 251쪽.

5) 클라인이 설명하는 것처럼 시기심은 유아가 엄마의 젖가슴에 투영하고 있는 이상화와 불쾌 사이에서 작동한다.

6) 에바 일루즈는 “경제 영역은 감정이 결여된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정서로 가득한 영역”이라고 지적하며 ‘감정자본’의 등장을 얘기한다. 에바 일루즈, 『감정자본주의』, 김정아 역, 돌베개, 2010. 54쪽.

부정한 감정으로 감춰지는 게 아니라 서바이벌 세계 속에서 주체의 감정으로 긍정될 여지가 충분하다.

만약 사정이 이러하다면 무한경쟁에 지속적으로 연루되는 주체들의 피로, 고통, 불안은 상당할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주체들이 느끼는 열정 이면에 놓인 두려움, 공포, 불안이 동시에 애기되지 않은 채 시기심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치부한다면 주체가 가진 복합적 감정구조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김홍중은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가 극대화된 ‘서바이벌’이 목적이 된 사회라고 말한다. 무한경쟁의 서바이벌이 전면화되었다는 것,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최대치로 살아남는’ 일차적인 의미의 생존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었다고 지적한다.⁸⁾ 때문에 이 세계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공포’, ‘불안’, ‘적대 상태에 놓여있다고 얘기한다. 같은 맥락에서 정수남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주체의 감정을 ‘공포’로 진단한다. 원래 공포가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지만 공포의 극복을 사회적 신뢰관계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채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게 되면서 개별화된 개인들이 감내하는 몫이 커졌다고 말한다.⁹⁾ 또한 박미선은 지속적인 경쟁과 불안정성 속에서 삶에 대처하는 능력 자체가 소진된 ‘곤경’에 빠진 개인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¹⁰⁾ 아울러 서동진은 환멸과 분노로 이루어진 ‘적대의 경제’로 이 사회를 분석한다.¹¹⁾ 또, 김찬호는 이러한 곤경과 적대가 한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면면히 지속되지만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각각의 개인들이 겪는 ‘모멸감’의 정도가 높아졌다고 말한다.¹²⁾ 이 세계 속에서 ‘생존’은 일차원적이고 동물적이다.

7) 한병철, 「심리정치」, 문학과지성사, 2015. 9-50쪽.

8)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255-291쪽.

9) 정수남, 「공포, 개인화, 그리고 축소된 주체」,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길사, 2015. 103-138쪽

10) 박미선, 「로렌 벨렌트: 잔인한 낙관주의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감정」, 『여/성이론』, 2015.12.

11) 서동진, 「정동의 경제, 경제의 정동」, 『감성사회: 감성은 어떻게 문화동력이 되었나』, 글항아리, 2014. 19-46쪽.

12) 김찬호, 『모멸감: 굴욕과 존엄과 감정사회학』, 문학과지성사, 2014. 83-90쪽

서바이벌 세계에서 ‘시기심’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감정처럼 자극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놓인 불안과 갈등과 동시에 재현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한경쟁을 명령하는 프로파간다와 다름없다. 뭉이 정해져 있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 뭉’을 가져야만 하는 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은 끔찍한 고투이다. ‘생존’의 전쟁터에서 승패는 삶과 죽음으로 귀결될 만큼 험난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막장드라마 속에서 재현된 경쟁관계는 서바이벌 세계와 유비관계에 놓인다고 볼 정도로 유사하게 드러나는데¹³⁾ 인물이 놓인 맥락 보다 스펙타클한 사건과 과장된 감정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인물 간 경쟁 자체가 극의 재미로 드러나고 있다. 또 이 경쟁 과정 안에 탈법적, 불법적 요소까지 끌어들이며 성공 여부만을 초점화함에 따라 각각의 인물들이 탈인격화되는 양상까지 띠고 있다.¹⁴⁾ 이로 인해 막장드라마는 기존 통속극과 달리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세계를 그리면서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비난을 사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시청자들은 이러한 막장드라마에 연루되어 간다.¹⁵⁾ 이는 막장드라마를 기존의 통속극과 달리

-
- 13) 우선 막장 드라마는 “보통의 삶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자극적인 상황이나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는 드라마”로 대개 복수, 불륜, 치정, 감금, 구타 등 패륜적 불륜적 행위가 드라마의 극적 구조를 해칠 정도로 ‘갈 데까지 간’ 통속극이라고 얘기된다. 이를테면 막장드라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아내의 유혹> 70회는 전체 방송분량 33분 중 15분10초가 고향·싸움·절규”(최승현, 「‘막장’보다 더 무서운 ‘분노 드라마’의 폭주», 『조선일보』, 2009년 2월 23일) 등으로 도배되고 있으며 선정성 폭력묘사가 지나쳐 경고조치를 받는 것은 물론, 이를 시청하는 시청자들까지도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한탄’에서 시작해서, ‘이것도 드라마인지’ 묻는 비난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드라마’가 지녀야 기본적인 덕목들조차 무시하며 전개된다. 플롯의 비일관성, 인물의 성격파탄, 폭력적인 대사와 사건은 ‘저급’, ‘통속’이라는 종전의 잣대만으로 막장 드라마를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 14) <아내의 유혹>의 폭력성 노출 수위가 높아 ‘경고 조치’를 직접 방송하기도 했다. “SBS-TV는 지난 2008년 12월 11일, 12월 25일, 2009년 1월 9일 1월 14일, 1월 15일, 1월 23일, 1월 27일자 ‘아내의 유혹’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윤리성) 제33조 (준법정신의 고취) 등, 제35조 (성표현) 제36조 (폭력묘사) 제44조 (수용수준) 제51조 (방송언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 15) “‘막장 드라마’를 기존 통속극의 연장선상에서 ‘권선징악 구도에 따른 대중적 카타르시스 유도’ 정도로만 해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이를테면, 막

해석해야 할 이유이다. ‘막장드라마’는 권선징악에 기반한 통속 드라마를 넘어서는 새로운 양식의 출현으로, 이 시대의 감정 구조와 밀접하게 연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막장 드라마의 문제적 양상이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내재화한 드라마 형식이라는 점, 그리고 이 속에서 시기심이 경쟁을 촉발해내는 감정이라는 점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II. 신자유주의 시대와 ‘시기심’이라는 감정

1. ‘시기심’으로 촉발되는 서사

<아내의 유혹>은 2008년 11월 3일부터 2009년 5월 1일까지 SBS에서 방영된 일일드라마로 현모양처였던 여자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복수하는 이야기이다. 30퍼센트를 넘나드는 높은 시청률로 ‘막장드라마’ 논란에 불을 지폈던 드라마이기도 하다. 주요 인물은 구은재(장서희)와 신애리(김서형)이다. 이 둘은 한 집에서 자란 둘도 없는 자매이자 친구이다. 신애리는 아버지가 뺨소니로 죽고 어머니가 재가하게 되자 친구 구영수의 집에서 딸처럼 자랐다. 그런데 인물소개에서도 요약되고 있는 것처럼, 애리는 은재와 같이 자매처럼 성장했지만 ‘늘 피해의식과 경쟁의식’이 있었고, 은재에 대한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은재가 부잣집으로 시집가게 되자 시기심이 폭발, 결국 은재의 남편인 교빈과 불륜 관계에 빠지게 된다. 바로 이 시기심이 129회 일일드라마를 추동해내는 내적 역동이다.

장 드라마의 기본구조를 분석한 글에 따르면 ①익숙하고 단순한 구조 ②공감가는 대상 찾아 빠져 들기 ③대상을 괴롭히는 악역은 필수 ④드라마가 아니라 드라마 속 악역 욕하기 ⑤저비용, 높은 시청률 등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또 다른 글에서는 ①악은 철저히 응징한다 ②에둘러 가지 않는다 ③질질 끌지 않는다 ④‘막장’에도 연기력은 필수”라고 논의된다.(김고은, 「쉽다…빠르다……쫓값을 치른다: ‘아내의 유혹’ 시청자는 왜 열광하나」, 『PD저널』, 2009년 1월 21일.)

〈표 1〉 〈아내의 유혹〉 인물소개(<http://tv.sbs.co.kr/temptation>)

은재의 집

- 구은재 : 장서희. 교빈의 전처. 민현주의 양딸. 믿었던 남편과 친구의 배신으로 죽을 고비까지 넘기며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후일 민토탈 뷰티샵 사장이 된다.
- 구강재 : 최준용. 은재의 오빠. 하늘의 남편. 과거에 애리를 좋아했었기에 애리에게 순종적이며 다정다감했지만 은재의 상처와 아픔을 알게 되면서 애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은재에게 힘을 보탠다.
- 구영수 : 김용건. 은재의 아버지. 밤무대 가수. 은재, 강재 남매에겐 너무도 소중한 우리 시대의 아버지. 민사장의 사업장이 있는 건물의 경비실장으로 일한다.
- 윤미자 : 윤미라. 은재의 어머니. 민현주 사장과는 민사장의 요리도우미로 일하면서 알게 된다. 은재의 친구 애리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자, 연민을 느끼는 다정한 부인이다.

교빈의 집

- 정교빈 : 변우민. 조강지처인 은재를 배신하고 애리와 바람이 난다. 은재를 바닷물에 끌고 들어가 죽음의 문턱으로 몰고가는 악행을 저지른다.
- 정하조 : 김동현. 하늘, 교빈, 수빈의 친부. 천지건설을 세운 천지건설 회장. 과거에 민현주 사장과의 관계에서 민사장을 배신한다.
- 백미인 : 금보라. 교빈, 수빈의 어머니. 사치스럽고 무식하다.
- 정하늘 : 오영실. 정하조와 민현주 사장 사이에서 낳은 딸. 강재의 아내. 10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 정수빈 : 송희아. 교빈의 여동생. 은재의 여고 후배이자 집안에서 바른 말을 한다. 은재를 많이 도와주며 애리를 울케로 생각하지않고 서로 보기만 하면 으르렁된다.

애리의 집

- 신애리 : 김서형. 교빈의 후처. 은재의 친구이자 강재의 애인으로 교빈을 유혹해 은재에게 큰 상처를 안긴다. 훗날 은재의 복수타겟이 되는 인물.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자 이에 연민을 느낀 은재는 애리를 배려한다.
- 정니노 : 정윤석. 애리의 아들. 교빈의 불륜으로 생긴 아이.

건우의 집

- 민현주 : 정애리. 토탈뷰티샵 사장. 하늘의 친모이자 건우와 은재의 양모. 정회장에게 사기와 배신을 당한후 은재와 같은 마음으로 복수를 결심하게 된다.
- 민건우 : 이재황. 민현주의 양아들. 소희가 사라진후 은재에 대한 마음을 가지
-

고 있다.

민소희 : 채영인. 민현주의 외동딸. 건우를 좋아한다. 죽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극 후반에 다시 살아 돌아온다. 그 후, 자신의 이름으로 산 은재를 괴롭히고 애리와 손을 잡지만 결국 애리를 배신한다.

드라마는 신애리가 5년 간의 파리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애리의 본격적인 도전과 유혹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애리는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교빈을 만나 적극적으로 구애한다. 교빈은 처가쪽 식구랑 얽힐 정도로 ‘개망나니는 아니야’라고 단칼에 거부하지만 성공한 애리를 끝내 뿌리치지 못한 채 집까지 얻어 이중생활을 하게 된다. 애리는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교빈씨”(2회)라고 말하며 은재를 찾아가거나 은재 시택에 방문하는 등 은재의 자리를 뺏기 위해 부심한다. 애리의 목적은 은재의 자리를 뺏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애리는 은재에게 식모처럼 살지 말라고(6회) 충고하는 척하며 이간질하거나, 은재집에 “구박데기로” 산다고(5회) 친정집에 고자질해서 불편한 관계를 유도하거나 심지어 교빈과 커플링을 하고 다니며 은재에게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 도발한다. 애리는 자신이 은재 자리를 차지해야지만 그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교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아내의 유혹>에서 애리의 ‘시기심’은 불평등한 관계에서 초래된 원한의 감정처럼 이야기된다.

“교빈이 은재를 건드리고 결국 결혼까지 이르자, 묘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낀다. 은재와 같은 집에서 성장하면서, 은재에게 늘 피해의식과 경쟁의식이 있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은재와 비슷한 성격이었음에도 전문대를 가야 했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디자인 공모전에서 은재에 밀려 파리 유학이 좌절됐다. 부잣집으로 시간간 은재가 늘 부러웠고, 부잣집 아들의 사랑을 받는 은재에게 질투심을 느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교빈과 눈이 맞아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고, 교빈의 지원을 받아 꿈에 그리던 파리 유학을 떠나게”¹⁶⁾

16) <아내의 유혹> 신애리 설명

<http://movie.daum.net/tv/crew?tvProgramId=52208#charId=15569>



이는 신애리의 악다구니 속에서 빈번하게 반복된다. 이를테면 ‘우리 시대의 아버지’¹⁷⁾ 역할을 맡은 구영서(김용건 분)는 자신에게 딸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말하지만, 애리는 ‘부엌데기’로 “눈치밖에 새우잠”(9회) 자며 “밥하고 설거지한 기억밖에 없다”(17회) 말한다. 또 은재 엄마에게 “딸로 큰 적도 없어요”라며 “나, 아줌마 부엌치워 주던 불쌍한 생명 아니라고요”(36회)라는 악다구니도 서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2년제 전문대 갈 때 은재는 4년제 대학갔다고 하면서 “작은 딸”이 아니라 “집안의 부엌데기”, 다시 말해 “콩쥐”였다고 기억한다.(9회) 또 구영서네 집에서 차별없이 키우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해 보지만(8회) 애리가 기억하는 것은 불평등한 관계(딸-부엌데기)에서 초래된 차별적 대우이다. 이런 원한은 오인된 기억으로까지 이어진다. 애리는 은재에게 “니 부모가 내 부모의 교통사고 보상을 가로 채서 니가 옷 사입고 대학 다닌거 아니”(23회)라고 비난한다. 물론 이 기억은 애리의 착각이다. 애리 부모님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보상금이나 합의금이 없다. 은재 오빠인 강재가 이런 사실을 정정해서 알려주지만 그렇다고 애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애리는 ‘가정파괴범’이라는 비난에도 은재의 침실까지 침입하며 “내 사랑, 내 눈물, 내 외로움만 볼거야”(17회)라는 집착에 가까운 고집으로 은재의 자리를 탐한다.

이처럼 <아내의 유혹>에서 시기심은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처럼 얘기된다. 불평등한 신분, ‘편’과 ‘빡’이 없고 가난한 집안 때문에 누적된 삶의 비참함에 애리는 고통받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애리가 원하는 것은 ‘정상

17) <아내의 유혹> 중에서 ‘구영서’ 인물 설명.

가정'(19회)에서 사는 것이다.¹⁸⁾ 애리는 정교빈을 은재에게서 뺏은 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부모님이 생겼다는 게 기뻐요”(38회)라고 말한다. 어쩌 보면 애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부모일지도 모른다고 짐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이 문제적인 것은 자매처럼 지낸 은재의 자리를 탐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나도 원한다’는 시기심이 더 중요한 욕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리는 은재가 가진 것을 자신도 가질 수 있다는 말한다. 물론 소 유대상이 하찮거나 도덕적으로 흠결있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애리가 원하는 것은 은재의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아내의 유혹>에서 한 개인의 욕망이 작동하는 방식은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원해’와 같은 방식이고, 이 욕망을 제어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기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물들은 객관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가능성이 있지만, 이들은 하나의 몫(대상)을 두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이유에 대해 유일하게 제시되는 것은 ‘원한’이지만 이조차 설득력 없는 자기합리화의 방편으로 보일 뿐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역동은 상대방의 기쁨을 해치고 그 몫을 가로채는 일이다.

2. 무한경쟁, 열정, 시기심

가난한 소녀의 원한이 결국 불륜과 패륜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면 그저 그런 통속극으로 분류될 지 모른다. 가난한 집 딸 은재를 부러워한 애리, 결국 은재의 자리를 탐하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정상적인 가족 안에서 사랑받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애리의 입장에서 십분 이해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은 한때의 망상으로 그치고 만다. 자매처럼 지내는 돌도 없는 친구를 잃을

18) 애리는 은재 결혼이 확정된 직후 교빈과 불륜관계를 맺었고, 이를 알게 된 교빈은 애리를 프랑스로 유학보낸다. 애리는 프랑스로 유학중 교빈에게 알리지 않고 교빈의 아이를 낳아 길렀고 이 사실을 은재의 이혼을 압박하는 이유로 사용한다.

것이 두렵고, 양부모로 자신을 지지한 부모를 실망시키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다. 또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고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가정을 파탄내고 그 자리를 내뺏으로 갖는 일도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내의 유혹>은 이 시기심은 이야기가 되고 현실이 된다. 불평 등한 위치에 놓인 개인은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노력한다면 남의 자리 또한 내 자리가 될 수 있다. 저마다의 욕망 성취를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공의 드라마를 써나가는 해피엔드의 드라마가 아니라 한정된 몫을 놓고 시기하고 경쟁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서사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바이벌 프레임 안에서 교환되는 규칙은 적법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 비도덕적 흥정이나 교섭, 또는 유혹이나 밀당조차 개인의 능력으로 과시되고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몇몇 인물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드라마 전체에 확산되어 있으며 ‘삶의 기술’처럼 다루어지기까지 한다. 이를테면 교빈네 집안이 그러하다.

교빈네 집안은 겉보기에 상당한 부자다. 강남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던 무렵 땅장사로 돈을 벌게 된 정하조가 이것을 밑천으로 아파트 건설 회사를 하며 재정규모가 탄탄한 중견회사로 키워냈다. 그런데 정하조가 판 그 땅은 알고 보면 자기 땅이 아니라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정애리)의 땅으로 사랑하던 여자를 배신하며 가로 챈 땅이다. 그 후에도 정하조는 질 낮은 시공자재를 서서 수익을 챙기는 등 사기 약탈 횡령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번다. 정하조를 두고 다른 인물이 ‘돈만 아는 냉혈한’이자 ‘더러운 돈벌레’(40회)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아들 교빈도 마찬가지다. 한 파티에서 “너희 아버지 아직도 땅장사하시냐”라는 놀림과 ‘촌발이 안 빠졌네’라는 비난을 듣는데 이는 정하조의 벼락치기 성공에 대한 비난의 언사이다. 이는 정하조 부인도 마찬가지다.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매일 화투판을 벌이며 돈놀이를 하는데 이 돈의 대부분은 은재 용돈을 뺏어 하는 것으로 경제력과는 전무하다. 정하조와 그의 부인, 그리고 아들 정교빈까지 모든 사고의 중심에는 ‘돈’ 밖에 없다. 이들에게 ‘돈’은 가치의 생산이 아니라 담합과 사기의 결과다.

때문에 이러한 시택에서 살아가는 은재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시택의 횡포에 온갖 모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습은 21세기 신데렐라와 다를 바 없다. 시어머니(금보라)는 은재 집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친정에서 자

식교육이나 시켰겠니'(3회)라거나 말끝마다 '너 같은 화상'이라고 말하며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는다. 또, 은재 오빠가 사고를 쳐서 합의금을 도와준 일을 두고 "또 오빠한테 연락왔니"(3회)라며 은재 친정집에 대한 비난과 차별의 언사조차 개의치 않는다. 이는 남편인 교빈조차 다르지 않다. 교빈은 가난한 친정에 돈대주는 자기 같은 남자가 어디 있냐며 "나나 되니까 너랑 살지"라는 말은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인물이다. 또 "처갓집이 궁상스러워서"(2회) 창피하다고 하는 등 은재 시어머니에 비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다. 이들이 은재를 구박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돈'이며 경제적 형편이다. 그런데 이들 앞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애리가 나타난다.

교빈이 애리에게: "나한테 붙은 게 돈 때문이지"(10회)

교빈이 애리에게: "너 남는 장사한 거야"(12회)

교빈이 은재에게: "애리랑 사업파트너야 못 헤어져"(15회)

애리가 강재에게: "돈없고 능력없으면 싸구려 인간이야"(12회)

애리가 나타나서 교빈을 다시 유혹하는 과정에서 유혹의 미끼는 대부분 '성공'이다. 애리는 "프랑스에 유학 갔다 온 선생님"으로 "실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나는 은재랑 다르다"는 설득의 변이다. 애리가 보여주는 '성공한 여자'라는 이미지는 그대로 교빈에게 어필된다. 애리를 만나고 들어온 날 교빈이 은재에게 하는 말은 "밖에 나가면 이쁘고 능력있는 여자가 발에 채이는데" "머리끝이 그제 뭐니"(5회)라며 탓한다. 애리는 "돈없고 능력 없으면 싸구려 인간"(12회)이라고 하며 불륜의 알리바이를 '능력'의 문제로 바꿔낸다. 그런데 교빈은 애리의 도발적 유혹에도 다소 거리를 두며 이혼만은 하지 않겠다며 버티지만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물론 그는 애리를 만류하며 "너 남는 장사 한거야"(9회)라며 '애정'조차 경제계약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한다. 이는 은재와 결혼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했던 얘기이다. 또 애리가 은재에게 이혼을 종용하며 한 말은 "돈 때문이면 위자료는 챙겨줄게"(23회)라는 말이었다. 어찌되었든 이들의 부도덕한 거래가 현실화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교빈이 애리를 '사업파트너'로 인정하면서부터이다. 교빈은 회삿돈을 사적으로 횡령하며 사용하다가 결국 회사에 막대한 손실

을 끼친 후 회사에서 쫓겨난다. 애리는 이런 처지에 놓인 교빈에게 “내가 최고가 된 것처럼 당신도 최고로 만들거예요”(12회)라는 말로 더 적극적으로 유혹한다. 이는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기를 펼 수 없이 지내던 정교빈의 성공 야망에 불을 지핀다. 결국 이 유혹에 정교빈이 넘어가 은재에게 “너만 포기해주면 돼”라는 말을 하면서 “애리랑 사업파트너야 못 헤어져”(15회)라는 말을 하게 된다.

은재가 설거지에 빨래를 해가며 집안을 유지하거나 교빈의 고모를 입히고 씻기는 일을 하는 것은 ‘고작’, ‘너는 거울도 안보니’ 등의 무능력으로 얘기된다. 그래서 은재가 구박과 멸시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말해진다. 여기에서 ‘능력’이란 사회적 위치이자 사회적 성공이다. 30억짜리 계약을 성공시켰다거나 업계 최고라는 식의 찬사, 그리고 며느리의 사회적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서 며느리 샅에 친구들을 대동하여 드나드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성공’ 욕망에 압도된 인물의 모습이다. 실은 은재는 부잣집 며느리로서 시아버지가 주는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통장으로 가지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화투칠 돈이 부족하면 며느리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며 며느리의 경제력을 일종의 화수분처럼 사용했다. 이는 교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빈조차 은재의 예금을 자주 빌려다가 쓸 정도로 은재에게 의지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성공’이다. 정교빈은 이혼을 반복하고 결혼을 반복할 때마다 상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점점 높아졌으며 경제적 상황도 나아졌다. 연인 관계는 사업 동반자의 관계로 전이되면서 성공 야망으로 이어졌다. 사랑/경제력이 서로 긴밀하게 연동하면서, 사랑, 결혼조차 자기 계발의 성공 욕망과 긴밀하게 맞물린 것이다. “당신을 최고로 만들거야”라는 신애리의 성공 욕망과 가족 판타지는 구분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들에게 ‘첫사랑’이나 ‘조강지처’ 등의 관념은 늘 ‘음모’와 ‘배신’으로 지워진다.¹⁹⁾

7년 동안 기다린 은재의 임신조차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명약이 되지

19) 정교빈과 대척적인 지점에 놓인 인물은 은재의 오빠 강재이다. 강재에게 사랑은 의리이고, 그런 만큼 ‘내 여자는 내가 지킨다’는 관념이 강하다. 그 여자가 사악한 짓을 하든, 거짓말과 사기로 자신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 인물이라고 할 지라도 ‘사랑은 의리’이다. 이는 구영서 집안 전체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못한다. 결국 은재는 시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교빈과 애리는 은재의 뺏속에 있는 아이를 낙태시키기 위해 부심하다가 결국 은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정교빈 집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불륜, 패륜을 작동시키는 힘은 모두 성공 야망이며, 이 과정에서 막말과 폭력적 행동이 표면화된다.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주인공은 도덕적 우위를 통해 ‘공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주인공이 ‘공주’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한 도전의 정신으로 능력을 갖는 것, 그 속에서 ‘성공’을 거머쥐는 것이다. ‘공주’라는 자리는 능력 있는 자만이 거머쥌 수 있는 자리이다. 그것이 비록 자매일지라도, 또 그 도전 속에 불륜과 폭력이 잠재해 있을 지라도, 성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용서될 수 있다. 이 속에서 은재는 공주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애리는 자기 자리를 거머쥐게 된다.

그런데 <아내의 유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애리의 불륜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통속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죽었다던 은재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나 애리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순간 사정이 달라진다. 은재가 재도전을 기약하며 기꺼이 무한경쟁 안에 다시 편입되는 순간, 은재/애리 모두 살아남기 위해 경쟁을 해나가야 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은재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지 아는 인물로 변모한다. 은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은 서바이벌 세계에 눈떠가는 인물의 변신 과정과 마찬가지로 변신의 목적은 한 가지, 애리와 교빈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뷰티샵에서 열리는 공모전에 자기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참가해서 세상 사람 모르게 복수를 도모한다. 민뷰티샵의 사장인 민현주(정애리)는 은재 실력이 1등할 정도가 아니지만 은재의 이름이 죽은 딸의 이름과 똑같은 ‘민소희’라는 점에 끌려 은재를 도와주기로 마음 먹는다. 뿐만 아니라 민현주 사장은 은재의 처지가 자신이 정하조에게 배신당한 경험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한다.

그런데 민여사가 은재를 도와주는 방식은 ‘자기계발’을 독려하는 방식이다. 직접적으로 힘을 행사해서 은재에게 높은 직책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 은재에게 자기계발에 나서라고 당부를 할 뿐이다. 그래서 은재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어학 공부, 수영, 미술 등을 하루 종일 공부한다. 이를 위해 은재는 아침도 거르고 공부하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영레슨

을 받을 정도로 웬만한 고시생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 은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높은 스펙을 쌓아 능력경쟁에 나서기 위해서이다. 은재가 복수하고자 하는 대상인 신애리가 교빈을 유혹할 수 있었던 것도 ‘파리 유학’이라는 높은 스펙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 민현주는 자기 자신을 혹사하며 자기 계발에 나서는 은재를 말리지 않는다. “참을 수 있다면 참아봐”(46회)라며 자기계발에 나서는 은재에게 ‘더 노력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야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하지”(47회)라며 노력이 아닌 결과로 드러나야 한다는 ‘성과’에 대한 방점도 분명하게 찍는다. 또 이에 대해 은재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며 신애리와의 능력 경쟁에 온 힘을 기울인다. 은재는 본격적 경쟁을 위해 헤어스타일과 패션을 세련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치아 성형과 얼굴에 점찍기, 손톱에 검은 멍 빼기 등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누가 봐도 능력있는 커리어 여성으로 변신한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자신이 있어요”(52회)고 되뇌인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구은재 역시 고통의 스토리텔링을 구사한다. “내 아기가 죽었어요. 아이의 죄값을 받아야 해요. 세상에 용서할 수 있는 죄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50회)라는 것, 구은재의 모든 마음은 오로지 성공과 복수로 들끓게 된다.

구은재가 신애리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경쟁에서 애리를 밀어내는 일 뿐이다. 구은재가 몸담고 있는 ‘민뷰티샵’과 신애리의 ‘벨라뷰티샵’은 토탈뷰티샵의 2대 경쟁사이다. 구은재는 그간 익힌 중국어 실력으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그간 쌓은 여러 노하우를 발판 삼아 신애리 손님들을 자기 손님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 구은재의 도전은 말그대로 신애리 이상이다. <아내의 유혹>을 패러디하는 다른 매체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구은재는 얼굴에 점하나 찍고서 마치 민소희인양 연기하며 정교빈을 유혹한다. 은재의 복수는 신애리의 몰락이다. 경쟁업체 벨라뷰티샵의 완전한 패배, 다시 말해 신애리의 완전한 항복을 원한다. 은재의 복수는 교빈과 신애리에게 성공을 뺏는 것, 그것도 사회적 성공을 가지없는 스펙으로 낙후시켜서 홀로 살아남는 것이다. 이 경쟁에 공정한 원리나 질서의 회복은 없다. 무자비한 경쟁 속에서 발악, 악다구니, 막말, 모함, 사기는 이 악무한의 경쟁이 파생시킨 감정적 잔여물이다.

이는 시기심 가득한 몇몇 인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해 인물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직장의 경계조차 붕괴시킨 무한경쟁이 배태시킨 문제이다. <아내의 유혹>에서 신애리가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생물학적 죽음도 동시에 선고된다. 경쟁에서 진 자가 무대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결과이다. <아내의 유혹>이 다른 드라마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선/악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불륜으로 욕망을 채운 남편의 서사는 대개 조강지처를 그리워하며 집으로 돌아오거나 ‘그래도 조강지처가 현모양처’였다며 ‘불륜’을 사악한 덕성쯤으로 이야기했다면 <아내의 유혹>에서 ‘가정’은 마땅한 정과 의리로 맺어진 사적 관계가 아니라 ‘성공’ 야망으로 애정이 교환, 계약되는 공간이다. 애리의 도전 그 자체만 보면 그저그런 통속극, 즉 나쁜 여자의 사악한 야망이 빚어진 이야기 정도로 보일 수 있다. <사랑과 야망>과 같은 통속극에서도 형제간의 싸움이 있었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삶의 비극성이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비극성은 사필귀정의 질서가 동반되어야 가능한 미의 식이라는 점이다. <아내의 유혹>에 비극적인 세계는 있지만 이를 정화시켜 낼 카타르시스도 없으며 오직 있는 것은 권선징악을 대신하는 승패의 결과뿐이다. 누구든지 ‘애리’의 처지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은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애리/은재는 주체의 경쟁적 위치를 보여준다.

쉽없이 도전해야 하는 무한도전의 시대에 가정과 직장의 구분은 사라졌다. 직장의 치열한 노동환경은 가정 내에 ‘저녁없는 삶’으로 외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 애정관계조차 예외가 아니라고 도발적으로 시사한다. 즉 ‘능력’있는 자가 ‘사랑’을 얻을 수 있으며 결혼조차 능력있는 자가 점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무한 경쟁 속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처한, 혹은 소외된 처지에 있는 이들이 겪는 불평은 부당함으로 사건화 되지 않으며 오직 한 개인의 처절한 자기계발의 과정을 통해서만 극복된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간성’이나 ‘의리’, ‘인연’ 등의 추상적 덕목이 아니다. 사랑은 능력있는 자가 얻는 것, 즉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이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사회적 성공이다. ‘사랑’은 뺏고 뺏기는 경쟁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포획물이다. 이는 ‘경제력/가난’으로 보여지는 성공도 마찬가지다. 교빈이나 신애리, 그리고 변신한 구은재 모두 ‘성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외화된 결과가 아니다. 이들에게

성공은 일종의 무한 경쟁의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으로 취득한 권력의 지분처럼 얘기 된다.

Ⅲ. 통합된 고통과 시기심이라는 감정자본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도전 가능하다. 심지어 ‘아내’의 위치까지도 누군가의 불륜 도전기를 통해 뺏어올 수 있다고 가정한다. 원래 남의 것은 없으며 사랑조차 움직이는 것이다. 이 속에서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경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내면의 신호이다. 21세기 한국드라마 속의 ‘시기심’은 인간의 본질적 감정처럼 얘기되지만 실은 ‘시기하라’에 가깝다. 신자유주의 프레임에서 배태되는 감정 명령이자 감정 자본이다. 불평등한 경제조건, 불균형한 인간관계는 운명처럼 주어진 것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가족의 도움이 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집안의 경제력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인맥과 학맥조차 제로에 가까운 한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막장 드라마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성이 가져야 할 덕목은 ‘시기심’이다. 네 옆의 친구, 형제, 동료의 것을 탐내라는 명령이 그것이다. 불평등한 경제조건, 불균형한 인간관계는 운명처럼 주어진 것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매일매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은재네 집은 가난을 면치 못한다. 가족 간의 우애와 신의를 지키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살아가는 은재네 집은 가족 해체의 수순을 밟아간다. 은재가 부잣집에 시집갔지만, ‘가난한 친정’은 결혼한 여자가 평생 짊어져야 하는 부끄러운 스펙이다. 가난을 극복하는 사랑은 없다고 말해진다. 오직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태도는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는 욕망으로 경쟁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쟁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전리품은 아직 ‘내 것’이지는 않지만 누군가와 싸워서 이긴다면 ‘내 것’이 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질서가 원하는 이런 유혹은 이미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편재해 있다. 또 그 질서가 우리 삶 구석구석 한 치의 빈틈도 용인하지 않고 스며들고 있다. 그래서 내 가족도 내 연인도 내

편이 아니라 내 스펙을 관리하거나 염탐하는 제 3의 눈으로 순간 돌변한다.

그래서, <아내의 유혹>에서는 ‘시기하라, 그것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일 수 있다.’ ‘그것이 비록 자매의 행복일지라도 뺏어라. 그리고 경쟁하라’고 부추긴다. <아내의 유혹>은 이같은 무한경쟁을 ‘가정’ 안으로 끌어들여 ‘성공’ 야망을 위해 애정이 교환, 계약될 뿐만 아니라 불법과 탈법조차 묵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신자유주의의 비극성을 자명한 질서처럼 수용하는 선전에 불과하다. 무한경쟁에 내몰리며 자기 계발의 터벌에 갇힌 이들이 감내해야 하는 공포, 무리한 스펙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느끼는 곤경과 불안, 그리고 승자독식의 부조리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세상에 대한 적대감까지, 어느 것 하나 그려내지 않은 채 오히려 그 불법적 탈법적 경쟁을 ‘삶의 기술’처럼 극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비극성을 사악한 개인이 도발한 사건으로 개별화한다. 닫힌 구조에 개별화된 인물로 삶의 비극성을 자명한 것처럼 만들고 있다. <아내의 유혹>은 엄밀히 말해 ‘신자유주의 질서의 유혹’이다. 그러므로 ‘아내’의 위치에 놓인 수많은 개인들의 삶을 보편적 존재로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애리’는 여전히 문제적이다. 애리는 과연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가족의 배경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집안의 경제력이라고는 눈씻고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인맥과 학맥조차 제로에 가까운 한 여성에게 부여된 자리는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아내의 유혹>에서 ‘애리’의 내면은 그려지지 않거나 그저 ‘시기심’ 가득한 괴물 정도로 그려지기 때문에 ‘애리’를 보편적 존재로 볼 여지는 없다. 이 과정에서 애리는 생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죽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애리가 놓인 위치는 지극히 보편적인 자리라는 점이다. 즉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에 나서야 하는 모든 이들의 얼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애리는 은재와 달리 줄곧 ‘시기심’ 가득한 인물로 그려졌으며, 항상 남의 것을 빼앗는 부도덕한 자의 얼굴로 그려지고 있다. 애리가 불리한 처지에서 무한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형상화는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애리/은재 모두 무한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을 선악으로 재현하고 있어서 애리의 내면이

나 고통을 이해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즉 도덕적 대립으로 분절되어 있지만, 실은 계급적 분절의 이면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다. <아내의 유혹>에서 은재의 승리가 공정한 경쟁의 결과처럼, 다시 말해 덜 사악하고 더 능력있는 인물의 마땅한 승리처럼 보이지만, 실은 공정한 경쟁이 있었다는 생각은 환상에 가깝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의 무한경쟁 안에 배신, 불법, 사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때문에 ‘시기심’은 승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든 선수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자본’, ‘배경’, ‘가문’ 등이 미약한 이들에게 부각되어 나타난다. 만약 애리가 계급적 적대감을 뒤로 한 채 개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악한 인물이라는 윤리의 필터로 통합되었다면 ‘애리’의 죽음은 더욱 문제적이다. 그럼에도 <아내의 유혹>은 이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차단한 채 ‘애리’의 도전과 죽음으로 이야기를 끝맺고 있다. 즉 악덕의 이유를 몇몇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켜 놓음으로서 불법적, 비윤리적 거래는 가치판단에서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말해져야 할 것은 말해지지 못한 채로 무한경쟁의 서바이벌 세계 속에서 비윤리적 행위조차 논점에서 지워지고 있다.

<아내의 유혹> 이후 텔레비전에서 ‘막장드라마’는 한동안 위세를 떨쳐왔다. 지난 몇 년 동안 시청자들은 막장드라마가 보여주는 혐오스러운 세계를 비난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대개는 높은 시청률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각종 매체에서 막장드라마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적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방송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막장드라마에 대해 폭력, 불륜, 막말, 불법 등으로 이어지는 초현실적인 인물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거나 또 이를 방조, 강화하는 극의 무리한 전개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이는 텍스트의 표층만을 지적하는 논의이다. <아내의 유혹>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막장드라마의 몇몇 징후들은 부수적인 감정적 잔여물에 불과하며, 오히려 문제적인 것은 무한경쟁의 프레임을 내면화한 인물들이 불법적, 탈법적 행위조차 합리화한다는 점이다. 시기심 가득한 인물은 과거의 원한을 알리바이 삼고 있지만, 이들의 탈법적 행각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다시말해, <아내의 유혹>이 문제적인 것은 무한경쟁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고 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기용했기 때문이 아니다. 대개의 통속

극은 부정적인 인물이나 반동적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더라도 권선징악의 마땅한 정의를 통해 비극적 세계를 정화시키는 데 반해, 막장드라마에서는 사필귀정의 질서가 사라진 채 승패를 통해 상대방을 압도하는 서바이벌 세계가 그 이면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비극적 세계로 조망하는 시선도 없다. 그래서 드라마의 극적 구조를 해칠 정도의 불법적 탈법적 요소들은 여전히 삶의 기술처럼 합리화 되고 있으며, 주인공은 그 능력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간다. 표면적으로는 권선징악처럼 보이지만, 실은 서바이벌의 결과이다. 시기심으로 무장해서 삶의 가치를 아무렇지 않게 훼손하는 인물, 그럼에도 인물의 감정 구조를 사악함으로 개별화시켜서 이들이 놓인 삶의 맥락조차 개별화시키는 극적 구조는 최소한의 삶의 진실조차 외면하게 한다. 이는 재미와 오락을 넘어서 탈법적 윤리를 승인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기본자료〉

<아내의 유혹>(SBS 일일드라마, 2008. 11.3 - 2009. 5.1)

〈논저〉

- 김고은, 「쉽다…빠르다……짓값을 치른다: ‘아내의 유혹’ 시청자는 왜 열광하나」, 『PD저널』, 2009년 1월 21일.
- 김영미, 「소비사회와 시기하는 주체」, 『감정의 지도그리기』, 소명, 2015.
- 김찬호, 『모멸감: 굴욕과 존엄과 감정사회학, 문학과지성사, 2014.
-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 박미선, 「로렌 벨렌트: 잔인한 낙관주의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감정」, 『여/성이론』, 2015.12.
- 서동진, 「정동의 경제, 경제의 정동」, 『감성사회: 감성은 어떻게 문화 동력이 되었나』, 글항아리, 2014.
- 세익스피어, 『오셀로』, 최종철 역, 민음사, 2001.
- 에바 일루즈, 『감정자본주의』, 김정아 역, 돌베개, 2010.
- 정수남, 「공포, 개인화, 그리고 축소된 주체」,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길사, 2015.
- 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01.
- 최승현, 「‘막장’보다 더 무서운 ‘분노 드라마’의 폭주」, 『조선일보』, 2009. 2. 23.
- 한병철, 「심리정치」, 문학과지성사, 2015.

❖ ABSTRACT

The Envy and Suffering: Feelings of Characters
Appearing in Self-Development Narrative
- Focusing on a Soap Opera

Park, Suk-Ja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trend of feeling under the neo-liberalism era through the soap operas. In particular, this article focuses on ‘envy’. Unlike jealousy, envy is the feeling of comparison appearing in people in similar circumstances that is displayed within the dual relation with its characteristic of having dynamics on the fortune (victory) of the other party for an unpleasant feeling, denial and interference. However, under the neo-liberalistic order with unlimited competition as its characteristic, ‘envy’ has the tendency to discourse with its passion of subjects participating in the limited share of competition. This begins in ‘envy’ under a soap opera to lead to competition to reproduce as the drama to dream of success for self-development. Under the circumstances, the feeling or behavior of characters not showing the general pattern but to individualize with the envious behavior of evil characters to turn away from the structural context for characters of issue of suffering originated within. For example, the soap opera imagines with ‘envy’ for the feeling of characters to reproduce the neo-liberalistic subject in darkness as well as to transfigure the suffering or context encountered by the characteristics to present the issues.

Key Words : envy, suffering, Soap Opera, self-development narrative, feeling, neo-liberalism, survival, individualization

■ 논문접수일 : 2017. 02. 10

■ 심사완료일 : 2017. 03. 01

■ 게재확정일 : 2017. 03. 03